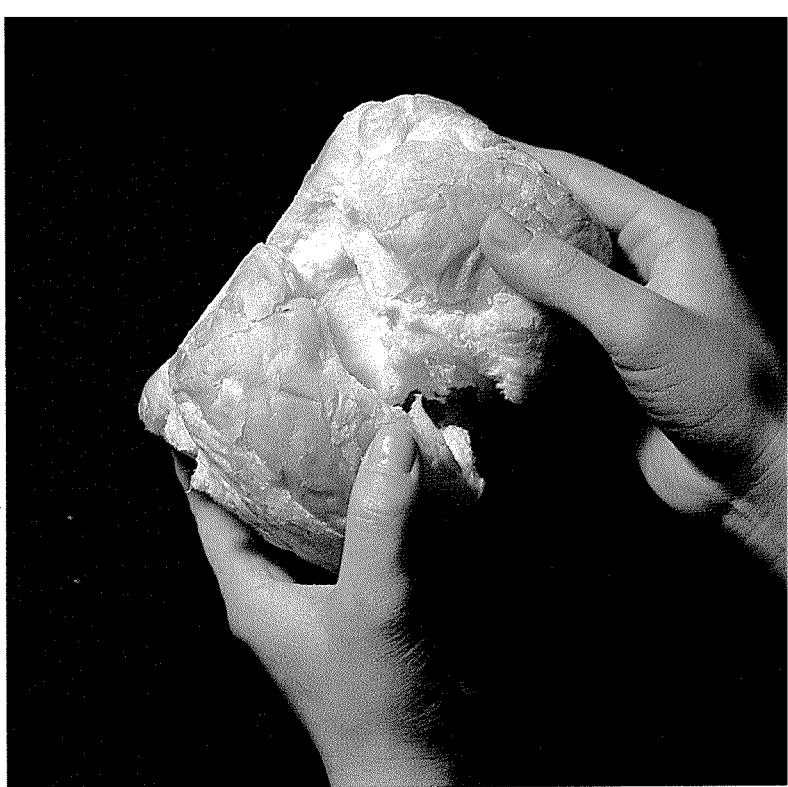


베이커리 줌인

그늘진 땅에 한 줌 햇볕으로

남모르게 벌이는 제과인들의 '사랑 나눔'



지난해는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다.

가스가 폭발하고 백화점이 무너졌으며

전직 대통령이 철창으로 향했다.

고단한 삶, 팍팍한 사회. 많은 사람들은 새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켜보곤 했다.

'베이커리 줌인'이 '희망'을 찾아 갔다.

남모르게 나눔을 실천하는 제과인들을 찾았고

그 수가 많은 것에 놀랐다. 공개되는 것을

꺼려하는 그들을 설득해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건져본다.

강아지도 웃었다. 노태우 씨의 비자금 관련 보도가 신문과 방송을 가득 메우고 있을 무렵 한 방송국의 9시 뉴스에는 '차라리 웃어버릴'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노태우 씨 부부가 어느 사회복지 시설에 매월 2,000원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5,000억원과 2,000원'. 금액의 차이만큼이나 부패와 탐욕의 깊이를 느끼게 했다. 국민은 분노했고 상대적 박탈감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덧없음을 느꼈고 때마침 불어닥친 겨울바람은 허허로운 마음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그들도 처음엔 그랬을 것이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게일에 매달리며 매상을 한 푼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아등바등했던 자신이 맥없이 허물어져가는 것을 느꼈을 것

이다. 그러나 그런 마음도 잠깐, 또 하나의 가족인 고아원 아이들과 장애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은 훌훌 털고 일어섰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돈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다.'

5천억원과 2천원...탐욕과 사랑의 차이

수원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효행원' 지하. 아저씨들의 말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한데 뭉쳐 좁은 지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수원 농고 출신으로 수원에서 '비엔나베이커리'라는 공동 상호를 사용하며 제과점을 꾸리고 있는 공병운 씨 등 7명의 회원들이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효행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4년 5월. 그들은 아이들에게 빵을 직접 만들어 주기 위해 돈을 주렴하여 효행원 지하에 제빵기계를 들여왔다. 그로부터 1년여, 그들은 1주일에 2번씩 번갈아 가며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줄 빵을 구웠다. 지난해 10월에는 효행원과 정식으로 결연을 맺었다. 정이 그리웠던 아이들은 맛도 맛이지만 아저씨들의 '정성'을 입속에 오물거리며 자기들에 대한 빵 아저씨들의 애정을 느꼈다.

대전 스위스제과의 황인필 씨는 매달 5일이 기다려진다. 눈에 밝혔던 보육원의 올망졸망한 눈망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제과협회 대덕구지부 총무를 맡고 있는 그는 관내에 있는 '성우 보육원' 후원 활동을 5년째 주도하고 있다. 성우보



오늘도 어김없이 빵아저씨들이 왔다. 아이의 눈에는 빵 만드는 게 그저 신기하다.

육원은 대전지부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곳으로 그 때까지 포함한다면 10년 동안 협회와의 결연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63개 업체의 회원을 두고 있는 대덕구지부에서는 매월 3~4개 업체가 돌아가며 보육원을 방문하여 그달 생일을 맞은 아이들에게 케이크를 전달하고 아이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눈다.

부산 스위스제과의 오상도 씨는 전에 했던 직장 생활을 떠올린다.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그로서는 남은 빵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후 가게를 차리고 그는 절대로 남은 빵을 그대로 버리지 않았다. 그때 그 생각대로 그는 근처 복지시설을 찾았고 그날 재고로 남은 빵을 고아원으로 날랐다. 장사가 안 돼 힘들 때도 많지만 그는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 남으면 아이들에게 갖다주면 되니까.

서울 신림동 뉴코아제과의 최석용 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다. 비자금 파문 때문이 아니고 그가 속한 관악지회의 후원활동이 다소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회 이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후원활동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분기마다 한 번씩 15명의 이사회 회원들로부터 케이크를 모아 회원들과 함께 관내에 있는 보육원인 '동명학원'을 방문하고 있다. 그가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지난 94년 5월 보육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기술교육을 위해 들여왔던 제빵기계가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킨다는 취지로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회원들이 시간이 나지 않아 제대로 실습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올해엔 더욱 분발하여 보육원의 제빵기계를 돌리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

빵을 나눔수록 풍성해지는 마음

이렇듯 제과인들 중에는 마음이 부자여서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을 가꾸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작은 정성들을 모아 지역사회에 그늘진 곳을 비추

는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구제과협회 북구지부가 8년 동안 40개에 이르는 지역 경로당에 한달에 한 번씩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구지부는 경산에 있는 '대동시은 재활원'을 매월 방문, 준비해간 재료를 이용하여 도넛을 만들어 주고 있다. 광주제과협회가 '과우봉사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후원활동을 벌이고 있고 부산제과협회는 보육원인 '새들원'의 아동 몇 명과 결연을 맺어 후원하고 있다. 또한 대전제과협회는 대덕구를 비롯 중구, 동구, 서구지부에서 관내 복지시설과 결연,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이



수원 비엔나베이커리의 공병원 씨 가게. '동명학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장식물이 걸려 있다.

밖에도 서울 나폴레옹과 자점, 대전 성심당 등 대형 제과점들은 남은 제품을 '좋은 일'에 쓰고 있다.

사람들은 대구 서구지부 회원들은 두 달에 한 번씩 꼭 재활원을 찾는다.

돕는 일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다. 수원 비엔나베이커리의 공병원 씨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정심만으로 이런 일을 시작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을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무엇을 베푼다기보다 같이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죠."

공씨는 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고 한다. 한국복지재단(구 한국어린이재단)의 강수진 과장(30)은 "복지시설

에 있는 아이들이나 소년, 소녀 가정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소외감과 빈곤 의식"이라며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을 스스로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마음만은 부자다'

처음 의욕은 좋았지만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과인 대부분이 직원을 두지 않고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시간을 내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 서구지부 지부장으로서 후원활동 실무를 맡고 있는 김기만 씨는 "110개의 회원업체가 바빠서 인지 모금에 비해 방문활동에는 소극적"이라며 "한 번 그 곳을 방문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활동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세상과 더불어 보람 있는 삶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몇년 동안 '나눔의 실천'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마음을 여유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그늘진 곳'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5,000억원의 뒷거래를 벌인 자들이 사는 곳이다.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따스한 온기가 식지 않고 밝은 표정이 멈추지 않는다. 사회 곳곳에서 남 모르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햇빛이 요즘 더욱 빛나보인다. [K]

(글/손인수)